



남원경찰,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가져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 청문감사인권관실은 5일 2층 서장실에서 남원새마을금고 우기만 이사장과 서장, 청문감사인권관 부청문관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3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양 기관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새마을금고측은 피해자 지원금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를 통해 남원경찰서에 지정 기탁되어,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우기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범죄피해자가 이번 후원으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승진 임용장 수여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1일 오전 9시 서장실에서 승진 소방공무원 3명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승진자는 정운철 소방위, 김승규 소방위, 노현우 소방장으로 임용장과 계급장이 수여되었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승진한 직원을 축하하며, "한 계급 높아진 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10월 무허가위험물 취급 저장소 단속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법령 위반행위 풍토를 근절하기 위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사항에 대해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은 ▲허가(승인) 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여부 ▲위험물 특성에 맞는 품목별 저장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단속 중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이나 안전컨설팅이 진행되지만 중대한 위반사항은 조치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때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이 입건 수사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놀이활동가 양성 힘쓴다'

무주 해노리놀이연구회, 도시재생 주민공동체 활성화 박차

2021년 무주형 도시재생 주민공동사업으로 선정된 무주 "해노리놀이연구회"가 "놀이활동가 양성 교육과정 수료식"을 지난달 30일 갖고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다.



무주형 도시재생 주민공동사업은 군민 5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다.

군은 지난 6월 해노리놀이연구회 등 4개 팀을 도시재생 주민공동사업에 선정했다.

해노리놀이연구회는 고령화된 주민들의 건강개선, 치매예방 등을 위해 놀이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도시재생 주민공동사업으로 "놀이활동가 양성과정"을 주 2회씩, 총 9회 원마케놀이, 화가부, 고누놀이, 저포놀이 등 자격증 전문교육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뜨거운 수강 신청 열기로 모집 인원보다 더 많

은 수강생들이 신청해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놀이활동가 양성과정 수료식에서 해노리놀이연구회 전희영 회장은 "언제부터인가 명절 때마다 마을에서 즐기던 민속놀이와 골목마다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다"라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마음껏 웃고 즐기던 주민들이 무주의 웃음을 되찾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무주군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도시생의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도시재생 주민공동사업 추진에 힘써주시는 무주군과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김혜전 센터장은 "성공적으로 무주형 도시재생 주민공동사업을 추진한 해노리놀이연구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건강한 전통놀이의 대중화를 통해 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며, 사회통합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협업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학생 대상 흡연·음주 예방 '뮤지컬 공연'

진안군보건소는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 14개교를 대상으로 흡연·음주 뮤지컬 공연을 실시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청소년 흡연경험 연령이 12.7세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 조기 금연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으며, 금연교육 전문극단(창작그룹 가족)과 전문 강사가 유치원과 각 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인형극·청소년 뮤지컬 공연(14회)과 금연교육(35회)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유치원생과 학생들에게 담배와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이 직접 금연선서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양수 노사 '어두운 골목 태양광 벽부등' 설치

한국수력원자력(주)무주양수발전소(소장 최정원/위원장 오대양)는 5일 노사합동으로 무주읍내 어두운 골목길에 LED태양광 벽부등을 설치했다.

(사)진라북도지원봉사센터, (사)무주군지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무주양수발전소 한전KPS 직원 등 20여 명이 함께했으며 무주읍을 중심으로 가로등불빛이 비추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흡연, 음주등)와 귀가길 여성 보호 및 어르신 낙상사고를 예방을 위해 한수리, 다인리, 주계로길, 단천로길등 LED태양광 벽부등 40개를 설치했다. 2020년부터 추진되었으며 태양광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행복한 무주민들에게 기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군 제4353주년 개천절 기념 단군대제 봉행

지난 3일 송조정신 양양으로 인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한 제4353주년 개천절 기념 단군대제가 오전 10시 30분 순창읍 단성전에서 단군성조송모회(회장 김법정) 주관으로 단군성조송모회원, 유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행사는 대제와 경축식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식전행사는 생략하고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간소하게 치러졌다. 대제는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

세이회리는 단군 성조의 위대한 건국대업을 되새기고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을 분발아 코로나19 위기와 갈등 극복 의지를 확고히 하자"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용담호 수질개선협의회, 정자천 합동 정화활동 실시

진안군 용담호수질개선 주민협의회(회장 김정길) 회원과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들은 5일 정천면 정자천 일원에서 대대적인 하천정화활동을 펼쳤다.

정자천은 150만 전북도민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용담호의 상류 지역으로서 지난 여름 피서객들로 인해 오염원 발생이 많은 곳이다.

특히 정자천, 진안천 등 용담호 상류지역은 집중 호우로 인한 부유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어서 광역상수원지킴이, 수질개선 협의회 회원들은 꾸준히 정화활동을 펼치며 용담호 수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고 있다. 용담호수질개선 주민협의회는 1년에 수십 차례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도 정화활동을 통해 정자천의 방치 쓰레기 및 부유쓰레기를 집중 수거해 용담호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사전 차단했다.

김정길 회장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용담호의 맑은 물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용담호 1급수 맑은 물을 지키기에 다 같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 건산동지사보험, 마을복지 추진 사업 발굴

김제시 김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한남수, 공공위원장 이진우)는 5일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추진하게 될 특화사업과 마을복지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마을복지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열렸다.

총 100명이 참여한 주민투표결과 민성질원자, 고위험자 건강관리 사업이 35표로 복지 의제 중 1순위로 결정되었으며, 취약계층의 약 복용을 점검하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로 결의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